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율법주의의 이중성

성경: 마태복음 5장 17-20절

Tag: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 자체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 율법에는 마땅하고 정의롭고 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분명하다. 그래서 율법은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목적의식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저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목적의식은 간데없고, 행위와 그로 인한 안전 확보만 습득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며(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인가? 율법의 역사와 율법정신을 가르치라는 말씀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율법의 존재목적, 또는 이유를 망각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율법의 존재목적과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곧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목적)는 관계 정상화를 위함이다. 율법의 존재 자체가 관계유지를 위해서이다.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신 6:5)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레19:18)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5-40)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유일한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의미이다. 이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하신다.(대법원) 이 주제가 율기서의 중심주제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는 선하나, 하나님은 악이라 판단하실 수 있다. 이때 최종 결론은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뜻이다.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그는 곧바로 불만족을 경험하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고통당한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욥을 향한 칭찬은 이것이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면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부르짖으며 질문하였다.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 그 속을 알 수 없어서 부르짖는 것 같다. (왜 전화기를 꺼 두는 것이니, 무엇때문이니?)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 하시길 나도 먼저 질문 하겠다. 만약 내가 질문을 할 때 네가 답할 수 있다면 나도 너의 질문에 답해 주겠다고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어차피 알려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선악과의 핵심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셨나요?’라고 질문하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창조의 원리를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욥에게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미 지금으로서는 선악과는 사라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지만, 그 정신만은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정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1법칙이다.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어떤 율법들은 마침내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었다. 제사법과 정결법이다. 예수님은 이 두가지 종류의 율법들을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완성된 율법

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율법들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고, 이웃을 위함이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도 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율법주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1. 관계정상화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 (회칠한 무덤같다.)
2.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함이 아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념, 자신의 습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율법을 오용하는 것.

-율법의 절대적 가치를 이기적으로 남용.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

-율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함.

-율법 + 세속적 가치를 혼합하면서 마귀의 목적으로 이용함.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에는 이중성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율법 + 마귀의 더럽힘이 곧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계기. 즉 율법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율법의 반복되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는 현상.

율법 + 이기심이 곧 율법을 이용한 자신(또는 자기진영)의 이익 창출. 정권유지, 기득권 유지, 프레임으로서의 정의 장악.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프레임을 이용하게 됨.

율법주의의 이중성이란 이처럼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율법을 이용한 하나님 대적이 되는 것.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수호하는 자임을 자청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마귀의 하수인이 됨.

율법 정신이란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보상받는 것임. 보상의 주체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율법도 있다. 아프리카 부족들도 나뉘어 살면서 율법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만들어내는 율법들이 있다. 사람들이 만든 율법은 대부분 결국 그 공동체를 정체시키고, 죽은 사회로 만든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걸려들었던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정신을 깨우치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청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낙원과 연옥 이야기 성경: 누가복음 23장 39-43절

Tag: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과 낙원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벧전3:18-22)

천국과 낙원

지옥과 음부

사도신경에 장사 시낸바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He descended into Hades 히 디센디드 인투 헤이디:스)

음부가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종교개혁자들은 음부교리를 지워버렸는가?

-행위가 구원이라는 프레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오히려 음부를 없애버리면서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혔다.

-이재철목사는 음부를 인정함.